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세바스티아노 리치, 『장님을 고치시는 예수님』(1715년).
캔버스에 유채,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 오늘의 전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르 10,46ㄴ-52 참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즐기고 찾다 보면 기도는 물론 미사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빛을 잃는다면 우리는 눈 뜬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눈 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시력을 주신 주님 뿐입니다.

제1독서 예레 31,7-9 **제2독서** 히브 5,1-6 **복음** 마르 10,46ㄴ-52.

입당송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김종기 바오로 신부 | 대천본당 주임

민음의 눈으로

여러분, 계절 빛이 완전한 이 가을, 단풍 구경은 좀 하셨는지요? 얼마 전 신자 몇 분과 동해 방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예쁘게 물든 단풍 산들을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라 나들이 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하고 일행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시에 두 분이 대답했습니다. 한 분은 “단풍이 참 곱네요!” 다른 한 분은 “차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 속담에 “뭇 눈에는 뭇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평소에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만 본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사물이지만 평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풍광을 보고도 어떤 이는 ‘아름다운 단풍’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복잡한 도로교통’을 생각하기에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매오는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을 못 보는 처지에서 어떻게든 ‘볼 수만 있다면!’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 주신다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조건 자비를 빌었습니다. 그분만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눈을 뜨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세상을 산다고 믿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치고, 강도질을 하고, 뇌물을 받고, 남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돈이 인간다운 삶의 척도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돈만 보입니다. 명예가 인간다운 삶의 척도라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매오는 자신의 믿음으로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육신의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 하느님께서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해 주시는 분이랴 믿는다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필로**

사회 교리의 원리들- 인간 존엄성의 원리1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 가족 모두가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선언이 세계인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근래의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은 약자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차별로 가득 차 있지요. 이방인, 여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최근까지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먼저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은 노예로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미국에서 1865년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비준되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남부지방의 흑백차별은 1961년에야 철폐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에 유입된 거란인, 말갈인들은 양수척과 화척이라는 이름을 거쳐 백정으로 불리면서 인간 이하로 취급받다가 1865년 갑오개혁에 이르러서야 신분제로부터 형식상으로나마 풀려납니다.

여성들도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 토라를 가르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열두 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는 딸을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 거짓말을 잘 하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은 차별받는 2등 인간이었고 남성과 같은 참정권을 얻은 것도 20세기에 시작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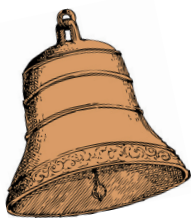
노동자들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860년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의 기사는 당시 영국의 10세 아이들까지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끌려 나와 밤 10시에서 12까지 노동하는 비참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도, 죄인도, 여성과 노동자도 모두 당신의 공동체에 받아들여 주셨고, 그 모범을 따라 바울로 사도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 3,28)”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느님을 찬미하는(사도 2,42~46 참조)”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역사 속에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교리의 첫 번째 원리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지침을 주는 사회 교리는 먼저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인간을 수단으로 모는 일에 반대합니다. 사회 교리는 사람이 나고 돈이 나는 것이지, 돈이 나고 사람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도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원리가 어떻게 교회 문헌 안에 나타나지는 다음 달에 다루겠습니다. **필문**

가브리엘 종의 선물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 비산본당 주임



지난 부활성야 미사에 특별한 종이 울렸다.

이 종의 이름은 대천사 가브리엘로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성당 축성일인 1959년 1월 29일 설치되어 대구의 서북부 지역의 넓은 들에 삼종을 올려왔었다. 그런데 80년대 군사 정권에 의하여 종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종탑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종에는 뽀얀 먼지만이 쌓여있었다. 낡은 종탑의 창문을 수리하고 종을 청소하여 부활 성야 미사에서 대영광송과 함께 타종을 하였다. 까만 밤에 맑디맑은 가브리엘 종이 다시 울려 퍼졌다. 다시 울린 종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 안으로 울려 퍼지게 만들 것이다.

부활 성야 미사 후 종소리를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추억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무엇보다 먼저 어르신들은 이 종소리가 참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다.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없었던 시절 성당에서 직선으로 1킬로미터 넘어서도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시계가 그리 흔치 않은 시절 가브리엘 종은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 때 그 시절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으면서 삼종기도를 바쳤으며, 식사 때가 된 것을 알았다. 종소리를 처음 듣는 이들은 종소리가 참 맑은데, 마치 서양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했다.

사실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종탑 수리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못했지만, 빗물

이 새어드는 종탑의 창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쩔 수 없이 종탑의 낡은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지사항 시간에 교우들에게 보여주면서 종탑 수리가 시급함을 알렸다. 어르신들은 낡은 종탑의 모습이 안타까워 정성어린 봉헌을 해 주셨다.

어떤 분은 '종탑을 수리해서 종을 올려야지' 하시며 가진 것이 얼마 안 된다면서 지갑을 몽땅 털어 주셨고, 어떤 분은 노령연금으로 받은 20만 원에서 5만 원을 제외하고 15만 원을 종탑 수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다. '용돈이 모자라실 텐데...'라고 하면 '다음 달에 연금이 또 나오니 괜찮다'고 하셨다. 또 어떤 분은 '일 나가서 벌었는데 익명으로 해 달라'면서 하루 일당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 어린 시절 종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며 기꺼이 쾌척을 해준 분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교우들의 정성어린 봉헌으로 가브리엘 종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하느님은 부활한 가브리엘 종을 통해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초대 교회 공동체가 "신자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사도 4,32)"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한 것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었고 교우들의 삶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가브리엘 종을 통해 멋진 선물을 내려주신 하느님은 찬양 받으소서. **가브리엘**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신이 사랑한 목소리

1996년 11월 17일 독일의 라이트 헤비급 세 체 챔피언 헨리 마스케의 은퇴경기가 있던 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눈을 감은 남자가수의 손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저 장님가수는 누구지?”, “대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은은한 선율이 흘러나오자 두 가수는 눈빛대신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며 『time to say goodbye』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이후 경기가 시작되고 헨리 마스케는 안타깝게도 판정패를 당하고 아쉬움과 미안함에 링 위에서 내려오질 못하자 2만 2천 명이나 되는 관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를 위해 다시 한 번 『time to say goodbye』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마스케와 팬들을 감동시킨 이 노래는 독일 음반 1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유럽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날 노래를 부른 서른여덟의 맏인가수 안드레아 보

첼리(1958~)는 이른바 국제적인 스타로 뜨게 되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을 안고 태어나 12세 때 불의의 사고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자 했던 안드레아 보첼리. 수많은 좌절과 시련, 궁핍한 생활과 장애인이라는 편견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가가 되었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가톨릭 성가 및 종교음악에도 몰두하여 바로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명 종교음악들을 모아 앨범에 담기도 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제게 눈 대신 목소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필로**



금주의 성인

10월 25일	성 가우덴시오(주교, 브레시아, 410년경), 성녀 다리아(순교자, 300년경) 성 크리스산토(순교자, 300년경), 성 크리스피노(순교자, 수아송, 287년)
10월 26일	성 에바리스토(교황, 순교자, 107년경), 성 에아타(주교, 수도원장, 헉스햄, 686년) 성 풀코(주교, 파비아, 1164~1229년)
10월 27일	성 오테란(선교사, 이오나, 563년), 성 엘레스바안(왕, 수도승, 에티오피아, 6세기) 성 프루멘시오(주교, 에티오피아, 380년경)
10월 28일	성 데메트리오(주교, 로스토프, 1651~1709년), 성 시몬(사도, 순교자, 1세기경) 성녀 아나스타시아(동정 순교자, 253년), 성 유다 타대오(사도, 순교자, 1세기경) 성녀 치릴라(동정 순교자, 로마, 270년), 성 파로(주교, 672년경)
10월 29일	성 나르치소(주교, 예루살렘, 215년경), 성 테오도로(수도원장, 비엔, 575년경)
10월 30일	성 세라피온(주교, 안티오키아, 199년경), 성 알폰소 로드리게스(수사, 증거자, 1531~1617년) 성 아스테리오(주교, 아마시아, 410년경), 성 제라르도(주교, 포텐차, 1119년)
10월 31일	성 볼프강(주교, 레겐스부르크, 930~994년), 성 포일란(선교사, 655년경) 성 스타치스(안드레아의 제자, 주교, 콘스탄티노플, 1세기)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수녀원 설립 100주년 기념미사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수녀원 설립 100주년 기념미사가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이문희(바울로)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전 봉헌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7일(토) 오전 10시 30분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43주간, 2015. 10. 25.~10. 31.>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르4-6장	7-8장	9-10장	11-13장	14-16장	루카1-2장	3-5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마르코 복음서』

① 전반부(1-9장)

- 갈릴래아 호수 서쪽 지방 선교(유다인들 지역/1,1-4,34) :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메시아이심을 소개한다.
- 갈릴래아 호수 동쪽 지방 선교(이방인들 지역/4,35-9,50) :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폭넓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연결부(10장) : 갈릴래아 선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결연한 발걸음을 내디디신다.

③ 후반부(11-16장) :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한 후반부는 곧 수난과 죽음(14-15장)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15,39) 된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주님, 저에게도 자비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28일(수) 19:00 성의여자고등학교 경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미바회 전국총회 미사	10월 29일(목) 11:00 성모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0월 26일(월) 11:00 수성성당	발달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11월 1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28일(수) 10:00 평화성당		

대리구 소식

성지순례에 초대합니다

기간: 2016.1.4~17(13박 14일)

성지: 이스라엘, 이탈리아

참가비: 약 435만 원

지도: 박성대(요한) 신부

신청: 2대리구청, 743-7010

성소 | 피정

산내 치유 피정

산내 치유 피정: 11.17(화)~18(수)

시니어 피정: 11.24(화)~25(수)

장소: 효령 하늘집(선착순 10명)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

일시: 10.26(월) 10:00~17:00

장소: 교육원대강당(점심 제공)

일정: 대주교님 미사, 강의, 성체현시, 강복

강사: 김동일 예수회 신부

문의: (010)5493-1819

교육 | 모집

잔꽃송이 축제 초대

기간: 11.14(토) 17:00~15(일) 14: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대상: 중1~고2 여학생 200명

회비: 2만 원(단체 환영)

신청: (010)2649-2045

빛페제 기도

일시: 11.14(토) 18:00~21:00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신청: (010)9056-9005

제51차 세계성체대회 공식 순례단 모집

기간: 2016.1.22(금)~2.1(월)

장소: 필리핀 세부

경비: 294만 원(대회등록비, 공동경비 포함)

문의: 가톨릭신문사 투어, (02)2281-9070

제4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설명회: 10.31(토) 14:00, 남산성당

초·중·고: 1.6~2.12(3, 5주 선택)

대·일반: 1.3~2.14(6주, 장기 선택)

세계 각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5차)

일시: 10.30(금)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테레사)관 3층 테레사홀

주제: 골다공증 / 문의: 650-4910

강사: 정형외과 이상욱 교수

2016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11.2(월)~6(금) 9:00~16:30

대상: 2009.1.1~12.31 사이에 출생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2016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문의: 850-3583(일반대학원)

850-3505(교육대학원)

<http://www.cu.ac.kr>

2016 전기 대구가톨릭대 특수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모집: 의료보건과학, 창조경제경영, 뷰티

예술, 사회복지, 국제다문화, 신학, 음악,

상담, 몬테소리, 한국관광학, 사회정책

문의: 660-5511~3(특수)

가톨릭상지대 2016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모집: 수시 2차, 11.3(화)~17(화)

문의: 입학홍보팀, (054)851-3021

<http://ipsi.csj.ac.kr>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통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스피치 킴의 가장 핵심입니다!

Speech.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사·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비나)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참소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 산부인과 의원

여성 전문 의료 기관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요르단

출발일: 2016년 1월 19일 (13일)

• 홍콩, 마카오 성지순례

출발일: 2016년 2월 17일 (4일)

T. (053) 253-3399

조 철 래(유스티노)

(주)영지여행 홈 미 회(안젤라)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 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www.misoindental.com

최 보 하강진료

행사 | 모임

위령의 날 미사

일시: 11.2(월) 10:00

장소: 비산성당 낙산묘원

집전: 김명현(디모테오) 신부

한국미바회 전국 총회 미사

일시: 10.29(목) 11:00, 성모당

미사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참석: 초대총재 이문희 대주교,

유홍식 주교 외 각 교구 대표단

대구미바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상의 빛> 현대이콘 성화전

천부성당 50주년 기념 후원전

기간: 10.29(목)~11.6(금)

장소: 교구청 내 까리마스 카페 2층

작가: 류봉렬(카마베오)

대구가톨릭문인회 글과 그림전

기간: 10.26(월)~31(토), 교구청 안익사

문의: 사무국, (010)2505-0504

바뇌의 성모기도회 월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0.29(목) 14:00, 삼덕성당

제15회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 전시회

기간: 11.1(일)~5(목), 교구청 안익사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수능합격기원 9일 기도

기간: 11.2(월)~11(수), 다사성당

문의: 587-7300

교육 | 모집

제12차 영남지역 CPE세미나

우울완화를 통한 자기돌봄과 영적돌봄

일시: 11.1(일) 9:30~16:00 / 3만 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주최: 대구대교구·성바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2006.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연고자께서는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으며,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50-3003

파티마홀 요양원 어르신 모집·직원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 받은 여성 어르신

채용: 간호사, 요양보호사(복구 사수등)

문의: 324-1188 / (010)8595-1186

위령의 날 버스운행(군위묘원) 안내

일시: 11.2(월) 9:00, 교구청 내

대건인쇄출판사 앞 주차장 출발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원

준비물: 미사도구, 도시락

예매기간: 10.26(월)~30(금)

선착순 마감(버스 4대분)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전화예매불가)

※군위성당 국밥 판매합니다.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면 다큐 '임파라 사랑파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 오전 11시 5분~12시 / 재방송 주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11월 7일(토), 14일(토) 전주원(바오로) 신부

11월 21일(토), 28일(토) 조정현(바드리시오) 신부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제3라떼
☎ 959-7175
☎ 959-7175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가)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대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성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턱시도대여 | 메이크업 · 헤어디자인
김대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분도의 한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로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 (베네틱도)